

MERITZ 메리츠화재

FY2010 결산 기업설명회 가져



메리츠화재는 5월 17일 경영지원 총괄 송진규 부사장 주관으로 영업총괄 박익현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Y2010 결산 기

업설명회를 강남사옥 2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FY2010 경영실적 및 FY2011 사업계획' 과 'FY2010 Embedded Value' 를 발표한 결과, 메리츠화재는 FY2010에 매출 3조 8천억 원을 올리고 업계 최고의 장기보험 성과를 구현함과 동시에 2년 연속 1,000억 돌파를 달성하는 등 업계대비 우수한 수익성과 건전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FY2011 사업계획으로 질적 성장과 양적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발표하며 FY2011에는 1,4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FY2010 EV(Embedded Value)는 자회사 분할에도 불구하고 1조 7,301억 원으로 2009 회계연도 대비 8.2%의 성장을 보였으며, 장기보험 보유계약 가치인 value of in-force business는 전년에 비해 2,880억 증가한 10,417억 원으로 38.2%의 성장을 보였다.

메리츠 아츠봉사단 2기 모집 위한 거리 공연 열어



메리츠화재는 '재능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메리츠 아츠봉사단 2기 모집을 위한 거리 공연을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공연 첫날인 토요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위치한 아르코극장 앞마당에서 오후 2시, 3시 각각 30분씩 두 번에 걸쳐 공연이 열렸다. 1기 단원이었던 '벨아르페'가 밝고 경쾌한 금관합주로 리베르탱고, 아리랑 등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메리츠 아츠봉사단 2기 모집을 알렸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홍익대학교 인근, 프리마켓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1기 단원 '기가히츠' 멤버들의 연주가 이어졌다. 이 날 공연에서는 '깊은 밤을 날아서', '붉은 노을' 등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레파토리가 연주돼 흥겨운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모집된 메리츠 아츠봉사단 2기는 향후 동아리 운영금 및 해당 분야 예술가의 마스터클래스 교육을 지원받게 되고,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찾아가 재능 나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한화손해보험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실시



1년간 자동차 운행거리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8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한화손해보험과 환경부, 부산광역시, 수원시는 3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자가운전자의 운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자체단체는 감축된 온실가스에 대한 실적을 인정, 또는 보유하고 그 실적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화손해보험은 녹색자동차보험의 판매, 주행거리 감소 확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내용 확인, 그리고 지원금 위탁지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에코프론티어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관한 인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13회 환경마케팅대상 시상

한화손해보험은 3월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 13회 환경마케팅대상 시상식에서 상품전략부문 마케팅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지속평가원이 주관한 제13회 환경마케팅 대상은 기업 성장엔진의 핵심인 마케팅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기업과 기관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종업원의 신체상해, 배상책임손해 등 사업장내 각종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성공플랜보험'의 우수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며, 보장내용의 설계부터 보험료, 만기환급금까지 업종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등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롯데손해보험

유니세프와 기부 프로모션 협약 체결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6월 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손해보험 김진익상무, 롯데디자인츠 장병수대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손해보험 희망포인트 기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한 롯데손해보험 '희망포인트'는 롯데손해보험이 동사의 광고 모델인 이대호선수와 전주우선수의 홈경기 홈런 시 1백만원 및 롯데 자이언츠 선수 홈경기 홈런 시 50만원, 롯데디자인츠 홈경기 승리 시 1백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된 기금은 시즌이 종료되면 유니세프에 아동구호기금으로 일괄 기부된다. '희망포인트'는 작년 기준 1억원 상당의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해보험이 유니세프와 이번에 체결한 포인트 적립 협약은 프로야구팀이 진행해온 포인트 적립행사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롯데손해보험 기부프로모션에 맞춰, 롯데디자인츠는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1억원의 '우승보험'에 가입하고 우승 시 보험금을 유니세프의 아동구호활동에 기부하는 '우승보험 기부 협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한편 롯데손해보험과 유니세프, 롯데디자인츠는 이날 경기에 앞서 기부 협약식을 진행한 후, 롯데손해보험 김진익 상무가 기념시구를 했다.

그린손해보험

FY2010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그린손해보험은 5월 19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연도대상 수상자 및 임직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FY2010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업현장에

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영업가족들을 위한 이 날 시상식에서는 대구사업단 대구지점 김길연RC가 대상을, 전남사업단 빛고을지점 김용학RC가 신인왕을 차지했다.

만 17년 동안 보험영업에 몸담으며 겸손과 정직, 자신감으로 성공을 일군 김길연RC는 지난 FY2009 연도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RC는 주어진 하루를 48시간처럼 활용하며 연간 매출 14억 원을 기록하고,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척영업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해 정상 의 자리에 또 한 번 등극했다.

'그린라이프 名家보험' 출시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4월 새로운 형태의 고객맞춤 컨설팅형 상품, '그린라이프 名家보험(1104)'을 출시했다. 기존 손해보험사 장기 상품이 대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名家보험은 내가 아닌 '가족 중심의 보험'이다. 가장 유고 시, 배우자와 자녀는 일시금인 △사망보험금과 최소 10년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자녀교육자금, △유족연금으로 실질적인 생계유지비, 교육비, 상속세 등 각종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무진단으로 최고 65세까지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사망관련 담보 등 모든 담보를 15년 갱신형으로 운영해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자녀교육자금, △유족연금 담보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FY2010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흥국화재는 5월 1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흥국생명명과 함께 대표이사들 비롯한 임직원 및 수상자 700여명(생명 430여명, 화재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FY2010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흥국화재 연도대상은 해남지점 한승만 FC가, 신인상은 부산 서면 지점 김은희 FC가 각각 선정됐다.

흥국화재의 보험왕 한승만 FC는 이번 수상으로 3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장기보험 신규 1억 8000여만원, 자동차보험 1억원을 웃도는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13회 통산 계약유지율 97%를 기록하며 4억4000여 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한승만 FC는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고객 섬김의 자세'가 성공의 비결"이라며 "늘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진실되게 대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밝혔다.

제4회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 개최



흥국화재를 비롯한 흥국금융가족은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를 5월 20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개최했다. 흥국화재, 흥국생명, 흥국투신,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6개 계열사 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임직원 19명에 대한 '자랑스러운 흥국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흥국금융가족은 모두 매년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더 큰 발전을 위해 흥국금융가족 계열사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국금융가족의 날 행사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손잡다



삼성화재는 5월 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통학차

량 안전대책 사업 등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우선 삼성화재는 5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천사의 날개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사 28명을 선발하여 서울시내 27개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천사의 날개'는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승·하차 안전 보호기로, 정차 시 뒤따르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다. 삼성화재는 1억 3천만원을 투입,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약 2천대에 천사의 날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행안부는 이 밖에도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학교, 가정, 사회의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럽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 시작해



삼성화재는 5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지대섭 사장 및 임원, 현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법인의 개업식을 갖고 유럽지역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사업 전개를 위해 세계적인 보험사인 프랑스 AXA, 스페인 Mapfre사 등과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사업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유럽지역은 최근 5년간 한국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0년 10월 한국-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유럽지역의 무역량 및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 삼성화재 유럽법인은 유럽경제지역의 한국기업 및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보험(企業保險) 위주의 보험영업을 전개할 방침이며, 향후 로컬 보험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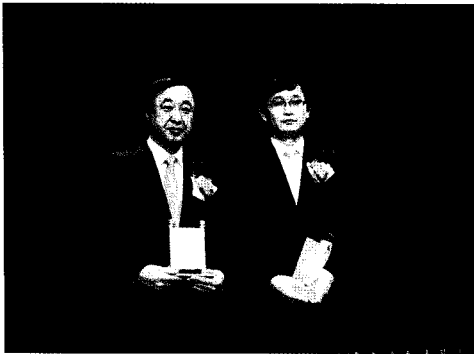
2010 현대해상 연도대상 시상식



2010 현대해상 연도대상 시상식이 지난 4월 17일 싱가포르에 위치한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몽운 회

장을 비롯해 약 300여 명의 하이플래너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몽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하이플래너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하이플래너들이 즐겁게 일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예의 현대인상 대상은 대리점 부문에 천안사업부 천안제일지점 하은대리점 남상분 대표가, 설계사 부문에 강서사업부 서울지점 이혜선 하이플래너가 선정됐다.

하이라이프 암보험, 매경금융상품대상 수상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암보험이 지난 3월 29일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있었던 매경금융상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매경금융상품대상은 매일경제신문사가 한 해 동안 출시된 우수금융신상품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이 자리에는 서태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현대해상은 보험사로서 최초로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현대해상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LIG 손해보험

대구시와 '대구 컨택센터 투자협약식' 개최



LIG손해보험은 5월 2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와 '대구 컨택센터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김병현 부사장과 대구시 김연창 정무

부시장은 서명으로 향후 2012년까지 100석 이상 규모의 상담실을 설치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으며 대구시는 대구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채용, 교육훈련 등 행·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LIG손해보험 대구컨택센터는 6월 7일 개소를 목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LIG 대구사옥 4층에 100석 규모의 첨단 컨택센터 시스템 및 부속시설을 갖추고 상담사 인력 채용공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현재 전국에 4개의 직영 TM센터를 보유하게 된 LIG손해보험은 경쟁사와의 직영 아웃바운드 부문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5월 25일에는 부산사옥에서 부산시와도 컨택센터 투자확대 MOU를 체결했다.

희망의 집 17호 완공식 개최



LIG손해보험이 후원하고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희망의 집 17호' 완공식이 지난 5월 26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에서 열렸다. 이날 완공식은 구자준 회장, 지원총괄

권중원 전무, 홍보담당 박주천 상무, 부산본부 김동은 본부장을 비롯하여 LIG손해보험 임직원 20여명과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및 오동호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의 집 17호'는 차유나(가명, 여, 16세) 학생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포함해 방 3개로 지어졌으며, 두 달여 간의 건축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한편 LIG손해보험 울산지역단은 차유나 학생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했다.

동부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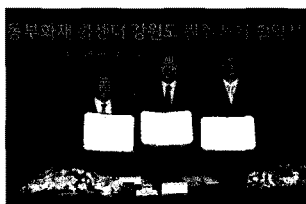
프로미 환경사랑 그림잔치 시상식 개최



동부화재는 5월 2일 동부금융센터에서 김정남사장과 환경부 기후정책대기관 이재현 국장, 그린스타트 사무국 김택천 총장, 그리고 수상작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미 환경사랑 그림잔치 시상식을 개최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함께 만들어요, 푸른숲! 아름다운 지구'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수정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총 3개 부문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총 4,94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3명의 어린이가 환경부 장관상과 100만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금상 6명에게는 상장 및 50만원, 은상 9명에게는 상장 및 30만원, 동상 30명에게는 상장 및 10만원 등 총 420명에게 1,6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원주에 콜센터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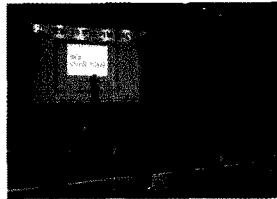
동부화재가 강원도와 투자협약식을 갖고 강원도 원주에 400명 규모의 콜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7월 1일 정식 오픈했다. 동부화재 원주 콜센터에는 인바운드 고객상담업무 300명,

아웃바운드 직판업무 100명 등 400명이 상시 근무하게 된다. 동부화재 국내 고객상담업무는 현재 서울과 전주 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원주는 제3콜센터가 된다.

동부화재 원주 콜센터가 들어서면 4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77억원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15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강원도와 원주시는 앞으로 동부화재 콜센터의 사업 성공을 위해 조례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원의 원활한 채용과 우수 상담사 양성을 위해 상지영서대학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학과 개설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FFPA 창립 38주년 기념식 개최



KFFPA는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여, 5월 13일(금) 오전 8시 30분 KFFPA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KFFPA는 금년도 경영목표인 위험관리 전문기관 역량강화와 화재안전문화 기반구축에 매진하자고 다짐하였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시행, 화재안전 봉사활동 및 대국민 화재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방화연맹 스티븐 우이 부회장 KFFPA 방문



국제방화연맹(CFPA-I ; Confederation of Fire Protection Association-International)의 스티븐 우이(Steven Ooi)부회장이 KFFPA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11년 4월 25일(월) 인도네시아 FPA(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피터 페트러스(Peter Petrus) 이사사와 함께 KFFPA 여의도 본사 및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을 방문하였다. 국제방화연맹은 전 세계 2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기술, 경험, 연구, 화재통계 등의 공유를 통한 국제 화재안전코드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UN의 화재분야 자문기구이다. KFFPA가 속해 있는 국제방화연맹 아시아분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 7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 발간



KFFPA는 손해보험업계의 기술보험 위험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내 최초로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딩, 교량, 항만, 터널, 댐 등 건설공사와 보일러, 발전기, 변압기 등 주요 기계장치의 위험관리내용을 담고 있